

부부의 애착유형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최정미·이 숙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우 희 정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노 명 희 (목포과학대학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성인기 애착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부부의 애착 요인 및 유형을 밝히고, 이러한 부부의 애착요인 및 유형이 결혼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부부 362쌍이었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및 성인기 애착과 결혼적응에 관해서는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및 백분율, Cronbach의 α 계수, Pearson의 γ 계수, 중다회귀분석, 군집분석, 일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부의 애착유형은 남편과 부인 모두 4개의 군집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군집의 성격은 남편과 부인 모두 안정-친밀유형, 불안-의존 유형, 안정-의존유형, 불안-회피유형으로 유사한 유형을 나타냈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애착유형을 결합하여 본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안정-의존형인 경우(16.6%)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남편이 안정-의존형이며 부인이 안정-친밀형인 경우(14.6%), 남편과 부인 모두 안정-친밀형인 경우(13.3%), 남편이 안정-친밀형이며 부인이 안정-의존형인 경우(9.9%), 남편이 불안-회피형이며 부인이 불안-의존형인 경우(9.9%), 남편과 부인 모두 불안-회피형인 경우(9.7%), 남편과 부인 모두 불안-의존형인 경우(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남편과 부인 모두 결혼적응 점수에 대해 불안애착요인(남편 $\beta = -.56$; 부인 $\beta = -.45$)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친밀애착요인(남편 $\beta=.32$; 부인 $\beta=.3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감이 적을수록, 친밀감이 높을수록 결혼적용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65, .56으로 각각 나타났다. 의존요인, 결혼지속년수, 소득, 남편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3. 부·부의 애착유형별 결혼적용을 보면, 먼저 남편의 애착유형별 결혼적용점수는 안정-친밀형(M=109.5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안정-의존형(M=103.17)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회피형(M=73.06)과 불안-의존형(M=70.64)은 낮게 나타났다. 부인의 애착유형별 결혼적용점수를 보면 안정-친밀형(M=107.00)과 안정-의존형(M=103.8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의존형(M=75.88)과 불안-회피형(M=74.29)은 낮게 나타났다. 즉, 남편과 부인 모두 안정-친밀형과 안정-의존형은 결혼적용 점수에 있어 불안-의존형과 불안-회피형에 비해 결혼적용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면에 불안-의존형과 불안-회피형은 결혼적용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의 애착결합유형에 따른 결혼적용은 남편의 결혼적용점수는 부부 모두 안정형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편이 안정형이면서 부인이 불안정형인 경우와 남편이 불안정이면서 부인이 안정형인 경우가 결혼적용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 모두 불안정형인 경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인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안정형인 경우가 부부 모두 불안정형인 경우보다는 결혼적용점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생활의 부적용의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높이고, 결혼적용을 높여줄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